

[온누리 가정축제(OFC)]

저녁집회 셋째 날 : 아버지의 꿈

[본문] 민 6:22~27 / 하용조 목사 / 페이지수: 3

아버지의 특권

하나님께서 가정에 아버지를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훌륭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목자요, 제사장이요, 지도자입니다. 목자는 보호자입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지도자는 인도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권인 동시에 우리의 희망이요 꿈입니다.

아버지의 특권 중의 하나는 축복권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은 교인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쏟아 부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야단만 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잘못이 있더라도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목사의 역할은 성도를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들을 축복하고, 바른 길로 가게하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야단치고 소리를 지르면 아버지의 역할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힘들 때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의 역할은 축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아버지들이 자녀를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축복의 내용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저주의 존재, 어둠의 존재가 아니라 축복의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복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복은 선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들, 딸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십시오. 시편 121편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히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용서, 무제한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실수요, 하나님의 본질은 용서입니다. 사람이 실수할 때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그 실수는 용서되어야 합니다. 그 실수는 감춰지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조건 없이, 값없이, 무제한으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을 구하십시오. 2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찌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축복하십시오. 많은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은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계승자

사실, 이 축복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아버지의 꿈을 보여 주는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로 전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미 결혼한 아브라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집안끼리의 결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중매결혼을 하고, 야곱은 연애결혼을 합니다. 다양한 결혼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가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배다른 형제, 어머니가 많은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성경 속 가정도 복잡했지만 축복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약속에 근거하면 과거, 출신, 가정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사람이 됩니다. 복잡한 현실을 붙잡지 말고 축복의 물줄기를 붙잡으십시오.

구약에 나타난 복은 일종의 편애입니다. 왜 야곱은 복을 주시고 에서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삭은 택하시고 이스마엘은 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편애는 편애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애 때문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공정하게 사랑했다면 우리는 택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은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어진 모든 복과 약속은 먼 훗날 메시아에게 집중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이 지상의 편견과 불합리, 갈등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십니다. 버린 자도, 잊혀진 자도, 창녀도, 귀신들린 자도 구원하셨습니다.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버지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요, 그 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세우라

오늘 우리는 가정 회복의 꿈을 갖습니다. 사탄의 전략을 깨는 무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라도 교회를 깨고 분열시키는 일에는 참여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깨면 성도들은 신앙의 고향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야 하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주일날 방황합니다. 교회가 깨지면 영혼이 방황합니다.

둘째로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면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갈등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는 죽을힘을 다해 기도하며 교회와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바로 세워지면 어떠한 위기가 와도 넉넉히 이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